

## 한전공대 연계 '일자리·지역경제' 두 토끼 잡는다

### 2022 광주·전남 핵심 성장동력

(1) 전남 초강력 레이저센터 유치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인구 절벽현상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2년 새해 화두로 '미래 100년 대비'를 제시하고 미래세대들이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광주는 고차기장연구소·AI반도체특화단지 등을, 전남은 초강력레이저센터·인공태양공학연구소·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등 유치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양 시·도는 대형과학인프라를 통해 연관산업·기업을 끌어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에 본지는 올해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상황 등을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전남도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랜드마크인 '초강력 레이저센터' 유치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기초 과학 분야 국가단위 연구 플랫폼으로 사업비만 9,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 50만㎡에 들어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초고속(200페타와트), 고에너지(40키로줄) 기반 레이저 시설을 결합한 다목

9,000억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당위성 마련 국가 계획 포함 건의  
국가균형발전 이끌 새로운 대안

적·집약형 복합 연구시설이다.

구축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이며 단계별 5년씩 총 2단계로 사업이 진행된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레이저 원천기술 토대 확보를 목표로, 플라즈마·입자핵, 우주전체 물리학 연구 등 초강력 레이저로 만드는 극한조건으로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 레이저 기반 입자가속 및 2차선원 개발로 물질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원천기술로 활용될 고에너지 레이저 요소기술 개발에도 나설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의료·생명, 우주

천문·국방 등 레이저 기술자립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제고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지역기업·우수인재 육성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국내 레이저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하고 일찌감치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점찍었다.

국내 레이저 시장은 2016년 2조 5,000억원에서 2021년 5조원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시장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3조 8,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20조 8,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 마련과 함께 레이저 광원, 광학계 부품, 제어기술 등 원천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이 시급해진 국내 상황에서

국내 레이저 관련 기업은 1,160여개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이 다수로 조립·가공에 치중돼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다.

그 결과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부품·광원·모듈의 경우 90%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소가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보다 고출력 연구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다 GIST가 보유중인 제어기술은 확장성이 없는 '중폭 매질'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후속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지난 2020년 국가대형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이후 대형 연구시설 분산배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대안이기도 하다.

레이저센터 유치가 성공할 경우 국가첨단과학기술 역량 확보는 물론 대형연구시설 불모지인 호남권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 "희망 담은 통합의 대선 됐으면"

### 문 대통령, 신년사 발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됐다"  
"국가적 성취 부정·평하할 수 없어"



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정운영을 돌아보며 "술한 위기를 헤치며 전진했다.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는 3월 열리는 대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의 축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

무너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며,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5·18민주묘지 신년 참배 3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새해를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 광주 오미크론 감염 90대 2명 첫 사망

광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90대 환자 2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최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들은 광주시에 신고된 90대 2명으로 모두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기저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A씨는 확진 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사망 후

검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됐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을 앓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치료를 받던 B씨는 빛고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29일 숨졌다. B씨는 지난해 5월 2차 백신 접종을 했으며,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중 17명은 입원 환자, 8명은 종사자였다. /오선우 기자

###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꿈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